

GNEWS

과학기술융용연구소 소식지 제1호 (2013.12.30.)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융용연구소(GTI)입니다.
매 분기마다 저희 내부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GIST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GNEWS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성장하는 GTI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 Startup GIST, 선순환창업생태계 조성 - Campus CEO Challenge(학생모의창업) 기획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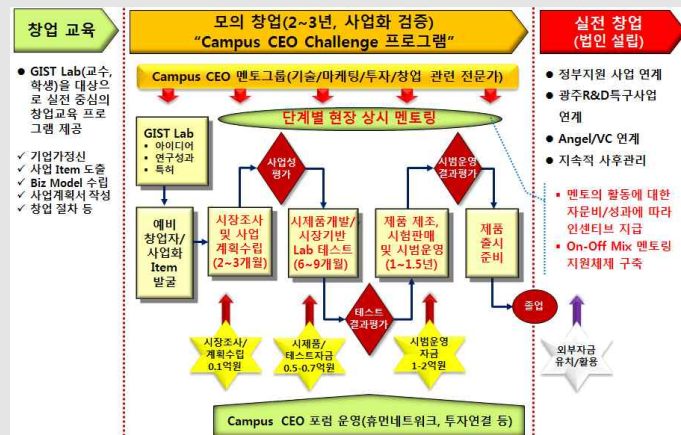
과학기술융용연구소는 GIST내 실전형 창업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GIST구성원의 아이디어 및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선순환 대학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Campus CEO Challenge'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GIST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기에 앞서 사업화 모델 및 시제품개발, 시장테스트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IST 학생모의창업은 4월 공고되어 총 5개의 사업아이템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아낌없는 지원으로 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충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비즈니스 모델 작성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 시켰습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기술이념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영, 마케팅, 회계, 재무계획 등 다양한 부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마련한 사업계획서 점검과 자문 워크숍(2회) 및 매출추정·재무계획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은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창업이 피부에 안 닿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밀도 높은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최종평가를 거쳐 총 4팀이 GIST 학생모의창업에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6개월 간 시제품개발비 5천만원 지원과 각 사업아이템의 전문가의 지속적 멘토링, 운영 중인 실제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창업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GIST, 창업 학생CEO 임명장 수여

지난 12월 10일 학생 모의창업 '캠퍼스 CEO 챌린지'에 최종선정된 학생 4명을 캠퍼스 CEO로 임명했습니다. 이날 직접 임명식을 수여한 김영준 총장님은 "이 사업은 '실패도 자산'이라는 인식의 전환 하에 학생들이 창업프로세스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해볼으로써 실제 창업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최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창조경제를 위한 창업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업을 실전형 창업 인프라와 선순환 구조의 대학 창업생태계 구축의 모델로 키울 계획"이라고 말하며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 2013년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성과발표 및 간담회 개최 - "지역 산업체 발전을 이끈 산업체 애로기술지도, 한해의 결실을 맺다"

과학기술융용연구소는 기술지도 전문가와 수혜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7일 GIST 내 오룡관에서 2013년도 산업체 기술지도 성과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업체 애로기술 지도사업은 GIST의 과학기술융용연구소가 GIST,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지역 주요 대학 교수와 호남 지역 국공립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등 200명의 전문가 인력을 확보하여, 1인사 기술지도와 기술교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학협력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입니다.



2013년도 산업체기술지도 결과로 1인사 기술지도 25건을 추진하여 유무형효과 80억(유형효과 50억, 무형효과 30억)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성과발표 및 간담회에서는 기술지도를 받았던 25개 수혜업체 중 신규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대표이사 의견서 등 4단계에 걸쳐 엄격한 심사와 평가로 부품·소재분야 2개, 광·용·용분야 1개, 디지털기전분야 1개, 생명·화학·환경분야 1개 등 5개 우수업체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융용연구소 박기환 소장은 "이제 지역산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 연구자와 지역 해당 산업체가 서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이다"며 이번 성과발표 및 간담회를 통해 기술지도사업의 산학협력 역량을 더 강화하고 이 사업을 기반으로 연구원 및 교수 창업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2013 하반기 전시회 현장 속으로~

과학기술융용연구소는 2013년도 하반기 GIST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한국전자전, 산학연협력EXPO의 3가지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고된 전시현장 속에서 GIST를 많이 알아보고 다양한 기술에 주목하는 외부의 관심을 느끼며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온 보람된 날들이었습니다.

-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분야의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GTI에서는 나노강화 멤브레인 소재, 입상나노기공 수처리소재, 나노영기철, 수소저장용 탄소소재, 중금속제거용 필터/흡수제의 5개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폐수나 오염물질 처리 기술의 경우 업종을 떠나 많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이기에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고, 기술이전의 단계로까지 진행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 한국전자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린 한국전자전은 국내최대 규모의 전자관련 전시회로 참가업체만 22개국 800여개에 달합니다. GTI는 CIGS제조공정 LIBS분석기술, 3차원 진동측정기, 미니분광기, 음성코덱의 대역폭 확장기술, 인쇄전자기술의 5개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삼성전자, SK네트웍스 등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스를 방문하였고, 전시된 기술뿐만 아니라, 완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술들의 자료를 함께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 산학연협력EXPO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COEX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주최로 2013 산학연협력EXPO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TLO사업에 함께하는 강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재료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의 5개 기관과 공동관의 형태로 참여하여 앞의 전시회에서 관심도가 높았던 3D진동측정기, 중금속제거용 흡수제/필터제의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TLO사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많은 외부인들이 공동관을 방문하여 전시기술을 소개받았고, TLO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GTI의 노하우에 대한 문의도 많았습니다.



◇ 발명자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한 기술이전 쾌거!

- 레이저 스캐너 기술, L사에 기술이전 체결

과학기술융용연구소는 기전공학부 ○○○교수의 “레이저 스캐너 기술”에 대하여 발명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GTI의 9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 하에 L사와 기술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난 4월, 해당 기술을 차량검지 및 인식 등의 교통 분야에 현장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을 시작으로 기술이전이 되기까지 총 20번의 GTI 및 발명자와 업체 간 면담을 진행했고,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자료를 주고받는 등의 과정도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첫 미팅으로부터 4개월 후인 8월에는 성능테스트를 통해 제품화에 있어 필수기능과 고려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발실무자 미팅을 통해 기술적용의 세부분야인 검지거리, 검지각도, 분해도 부분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면담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와의 협의 하에 12월 기술이전 선급기술료 1.1억원과 매출액의 1.25%를 경상기술료를 조건으로 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L사는 기술이전 이후의 관리, 상용화 연구, 기술교육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기술이전으로 GIST와 L사 모두 win-win 할 수 있도록 많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 GIST 지식재산의 경쟁력과 연주소

광주과학기술원은 전자신문이 분석한 2013년 전국대학 지식재산 경쟁력 평가에서 종합순위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해외특허, 표준특허관리 등을 중심으로 IP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해외 특허등록과 해외공동연구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교수 1인당 평균 7.04건(대학 평균 0.39건)의 해외 출원과 3.28건(대학 평균 0.14건)의 해외 등록을 기록했고, 전체 특허 가운데 2개국 이상의 해외 동시 출원을 보유한 비중이 29.2%(대학 평균 9.71%)에 달하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탁월한 IP 글로벌 경쟁력의 요인은 국내 출원 특허의 50% 이상이 해외 출원된 점과 세계 최고 이공계 명문대학인 미국 칼텍과의 교육연구협력 등 해외 우수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위	대학	점수
1	한양대학교	678
2	고려대학교	618
3	포스텍(POSTECH)	590
4	성균관대학교	578
5	광주과학기술원(GIST)	540
6	연세대학교	519
7	한국과학기술원(KAIST)	498
8	서강대학교	490
9	서울대학교	480
10	경희대학교	477

◇ 2013년도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성과

광주특구는 2013년도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로 광기반융복합, 자동차부품, 스마트그리드, 디자인문화, 바이오소재 분야를 선별하여 연간 2~5억원의 규모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GIST기술 20건을 기술사업화 후보기술로 발굴하여 제출하였고, 이중 4건이 기술사업화 RFP 후보기술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의 기술이 기술사업화 과제로 선정이 되어 2.7억 원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공학부 ○○○교수의 ‘공기중 안정한 영기철 나노입자의 상용합성 기술개발’은 선급금 1억원으로 C사에 기술이전되었고, 고동광기술연구소 ○○○박사의 ‘SS-OCT기술개발’은 H사에 선급금 1.4억에 진행되었으며, 정보통신공학부 ○○○교수의 ‘센서장치기술개발’은 G사에 선급금 3천만원에 기술이전 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